

방송기술인과 함께 2017년 새롭게 도약하는 「방송과기술」이 되겠습니다



글.

이정택 방송과기술 편집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만에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빨간 원숭이의 해' 병신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마다 병신년에 대한 기억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성취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병신년이 지나갔다는 사실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쉬운 한 해를 보냈던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입니다. 닭은 부지런하고, 명석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닭이 가진 장점만 본받아서 1년 동안 열심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방송과기술'을 채워 나가면서 '방송과기술'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방송과기술'은 1987년 11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창립되고, 바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 7월 처음 발행을 시작하여 29년째 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52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초기엔 격월간으로 발행되다가 2003년 7월부터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기술'은 매월 우리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과기술'은 명실상부 최고의 방송기술전문지라고 할 것입니

다. 그 시대의 최첨단 방송기술이 소개되었고, 방송기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송제작현장의 생생한 기록이 녹아 있습니다. 방송기술에 대한 미래가 예측되었고, 예측의 결과도 포함되어 방송기술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과기술'에는 방송기술인들의 생각이 시대별로 담겨 있습니다. 방송 현장의 기술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별로 겪었던 위기와 기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참여한 행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기술 정책 변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기술인들의 생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방송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방송과기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소중한 방송기술 역사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방송과기술'을 위해서 1년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방송과기술' 역사의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방송과기술'의 포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폭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 기술 분야 이외에도 관심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입에 오르내리던 융합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과 종합편성채널,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들의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등 기존의 방송영역에 어떤 회사가 들어와 경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고가의 방송장비를 기반으로 하였던 방송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걸음 내디뎠습니다. 방송 진행자보다 더 유명한 BJ(Broadcasting Jockey)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송기술의 본질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소소한 일상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례로 단순히 음식을 먹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 없이 방송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방송기술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

송기술인들 모두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숨 돌리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한국말은 아마도 '빨리빨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겠지만 동시에 '빨리빨리'가 세상을 너무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쁘기도 하지만 마음만 급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지금까지 사용하던 지식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기술인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정보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에서 열이 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젠 노력하지 않으면 방송기술인들끼리도 공감의 영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과기술'은 방송기술인들의 소식도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나마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편안한 내용의 글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료들의 소소한 일상과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변화에 발맞추겠습니다

방송기술과 동떨어졌던 새로운 기술들이 방송과 융합되고 있습니다. IT 관련 기술, VR, UHD 등 새로운 기술 소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겠습니다. 그 자체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이 너무나 얹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만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을 경우겠지만요.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부족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방송기술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고만하겠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내용을 엄선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2017년 첫 '방송과기술'을 받아 보시면서 많은 분이 느끼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상적인 이미지로 구성하였던 표지를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를 사용하여 꾸며 보았습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단어를 선정하여

독자 여러분께 전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B'입니다. 'Broadcasting & Technology'의 첫 글자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Beginning'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방송과기술'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표지뿐만 아니라 활자 크기도 조금 크게 바꾸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좀 더 과감하게 변경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자 크기의 경우는 책의 디자인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활자의 양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등 이미지를 활용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방송과기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전에 발행된 기사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송과기술'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편집위원님들을 통해서 아이디를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PDF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2009년 이후의 기사만 읽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방송과기술' 1호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기술인의 역사서로서, 연합회원의 소식지로서, 방송기술의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방송과기술'에 대한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몸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